

2025년 우리대전같은 책읽기, 후보도서 8권

희망의책 대전본부

문의 : 010-4576-1235(이혜선)

제 18회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대전시민이 뽑는 한권의 책에 투표하세요

우리 대전 같은 책읽기는 한 해,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대전시민의 책읽기 증진을 위한 독서문화운동입니다.

시민들의 추천해주신 33권 중 선정회의를 통해 **최종 8권의 도서를 후보도서로 선정**하였습니다.

투표를 통해 최종 한권의 책 선정 및 저자 초청 북토크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투표기간 : 2025. 7. 14(월) ~ 20(일) / 7일간



<https://bit.ly/2025우리대전같은책읽기>



1. 4x4의 세계 / 조우리 / 창비
2.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 이한 / 동아시아
3. 대전건축여행 / 김예슬 / 파이퍼프레스
4. 대전 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 김선재, 임재근, 정성일 / 문화의힘
5. 시계탕 / 권정민/ 웅진주니어
6.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거야 / 이병주/ 다산어린이
7. 인간의 시간 / 이강산/ 눈빛
8. 커먼즈란 무엇인가 / 한디디/ 빨간소금

후보도서 8권(가나다순)

선정기준 7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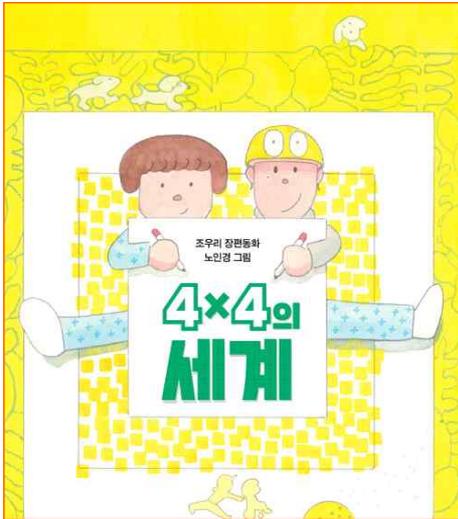
- 토론주제의 다양성
- 세대간 소통, 토론 가능성
- 청소년과 대화 가능성
- 지역과의 연결성
- 작품 완성도(흥미, 흡입력)
- 사회적 이슈의 적절성
- 시의 적절성



개별 책 소개는 희망의책 대전본부의 홈페이지(www.djbook.or.kr)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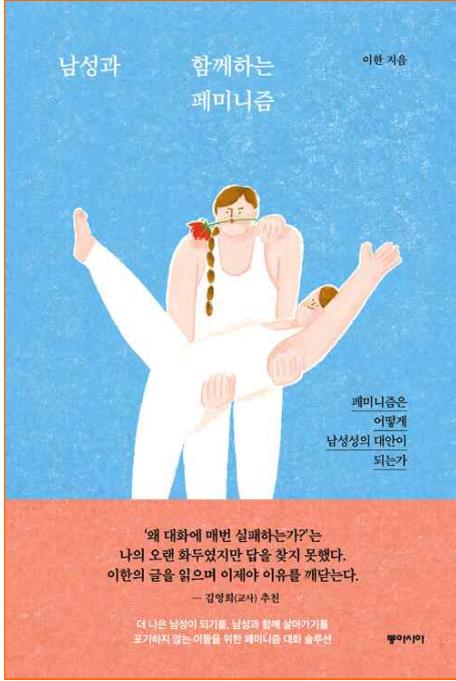
- 책 소개는 '알라딘' 사이트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2025년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소개 1

책제목	4X4의 세계		
작가	조우리(글), 노은경(그림)	출판사	창비
 <p data-bbox="225 987 624 1014">제29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대상 수상작</p> <p data-bbox="225 1025 304 1111">창비 좋은 어린이책 수상작</p> <p data-bbox="331 1021 624 1061">"우리가 만든 세계 안에서 난 잘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날 거다."</p> <p data-bbox="331 1068 555 1102">영성으로 치환되지 않는 재미와 감동. 문과 언어의 가능성을 한껏 발휘한 작품. ... 심사평에서</p>	<p data-bbox="662 450 1390 790">(책 소개) 주인공 이름은 '제갈호', 사람들은 '가로'라고 부른다. 오랜 입원 생활로 혼자 빙고하는 기술을 터득하여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보이는 천장의 정사각형 총 16칸으로 빙고 놀이를 한다. 병원 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메모를 발견한다. 메모 작성자는, 본명이 '오새롬'인 '세로'다. 가로와 세로는 메모를 교환하며 우정을 다져 나간다.</p> <p data-bbox="662 853 1390 1301">제29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고학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4x4의 세계>는, 가로가 세로를 만나면서 자신의 세계를 점차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장편동화다. 가로와 세로 둘만의 책, 메모, 빙고, 그리고 우정에 관한 몽클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주변 인물들의 사람 내음 가득한 이야기가 곳곳에 채워진다.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손 메모와 빙고를 매개로, 가로와 세로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진다. 4x4 사각의 좁은 세계가 등글고 넓게 변해가는 과정에 노인경 작가의 온화한 그림이 더해져 한층 더 빛을 발한다.</p>		
<p data-bbox="183 1346 1390 1480">(추천이유) 어린이의 내면, 돌봄의 현재, 좋은 어른의 모습, 나를 찾아가기 시작한 어린이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유머와 뼈대리는 직설화법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예요.</p>			
<p data-bbox="183 1536 1390 1671">(선정위원 한마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 한 아이의 시각을 통해 제한된 삶의 공감을 배울 수 있는 책,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인상적., 비록 신체적 제약이 있어도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책.</p>			

2025년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소개 2

책제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비문학-사회과학)		
작가	이한	출판사	동아시아



(책 소개) 혐오의 놀이터가 된 교실, ‘역차별’에 분노하는 이대남, 혼자만의 동굴에 갇힌 아저씨, 사과할 줄 모르는 정치... 가부장적 남성성과 유해한 남성문화는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꿰뚫는 키워드다. 남성과 남성성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즘 단체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성평등 교육 활동가인 이한은 페미니즘이 남성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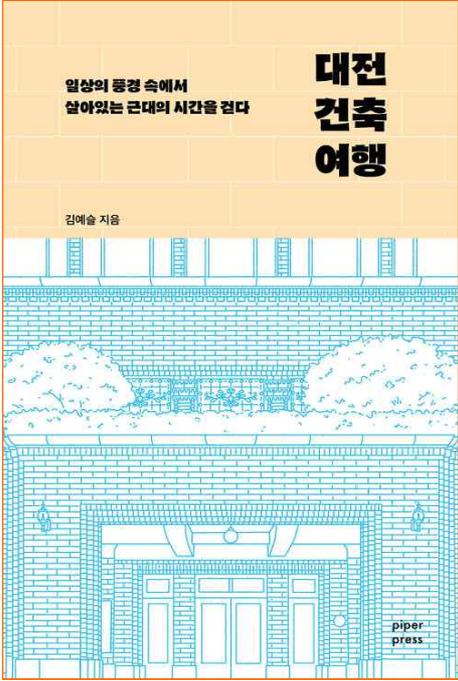
페미니즘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자신을 증명할수록 모두가 불행해지는 남성문화에 대한 고찰이자,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한 여러 오해를 해소하고 함께

성평등 동반자가 되자고 건네는 초대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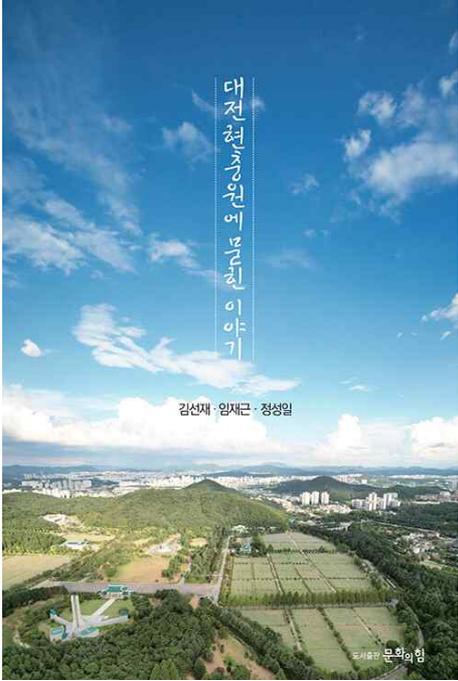
(추천이유)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의 '젠더 갈라치기' 이후 극우화된 청년남성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남성성에 대해 고민하는 페미니즘 단체,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이한님이 쓴 이 책이 한국사회 남성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정위원 한마디) 요즘 남성의 극우화를 체감하면서 남성들과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추천, 오만한 남성성에서 벗어나 건강한 남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철학과 실천을 담은 책

2025년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소개 3

책제목	대전건축여행(비문학-인문학)		
작가	김예슬	출판사	파이퍼레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209 439 667 1120" style="width: 30%;">  </div> <div data-bbox="683 439 1398 940" style="width: 65%;"> <p>(책 소개) 김예슬은 10년 넘게 1000곳이 넘는 전국의 건축물을 여행지 삼아 오래된 이야기를 발굴해 온 '건축 여행자'다. 서울의 근현대 건축물을 다룬 『서울 건축 여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에는 한층 깊어진 시선으로 대전과 그 인접 도시들을 여행한다. 대전은 철도가 깔리며 발전한 근대 도시다. 충청도 곳곳에는 근대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거점 역할을 했던 집과 성당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땅에서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과 같은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건물들은 조용히 과거를 증언하고 있다.</p> <p>아름다운 근대 건축으로 알려진 충남도청사 본관, 성심당의 출발점이 된 대흥동성당, 김수근 건축가의 건물들, 벽돌 벽에 기와지붕을 얹은 한양 절충식 가옥까지. 낯설고도 아름다운 공간들이 역사적 이야기와 함께 펼쳐진다.</p> <p>작가는 벽돌과 타일, 유리 창문과 나무 천장을 들여다보며 시간의 흔적을 읽어낸다. 무수한 발걸음 끝에,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건물들의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들었다. 건물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잊혔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p> <p>(추천이유) 시간을 품은 건축물에서 목격한 근대의 순간들 건물을 스쳐간 사건과 인물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대전, 청주, 공주, 옥천에서 일상의 풍경을 새롭게 보다.</p> <p>(선정위원 한마디) 대전을 알리기 좋은 대중서! 거기에 대전의 역사까지, 도시의 벽돌과 기와에 새겨진 근현대사의 숨결을 감각적으로 되살려낸 시간 여행 안내서</p> </div> </div>			

2025년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소개 4

책제목	대전현충원에문헌이야기(비문학-역사)		
작가	김선재, 임재근, 정성일	출판사	문화의힘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div> <div style="flex: 3; padding-left: 10px;"> <p>(책 소개) 대전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문헌 국립묘지다.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묘지 안장 10만 106위, 위패봉안 4만 1,365위, 총혼당 봉안 4,949위, 무명용사 유골함 33위 등 대전현충원에는 총 14만 6,443위가 모셔져 있다. 국립묘지에 모셔진 이들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p> <p>2023년 9월부터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써서 ‘대전현충원에 문헌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했고, 이 책은 1년간 연재한 글을 엮은 것이다.</p> <p>(추천이유) 최창문: 카이스트 졸업생 3명의 작가가 대전현충원을 손발로 뛰어다니며 쓴 이 책을 통해서 대전현충원은 무덤이 아닌 대한민국 근현대사 인물사전이 되었다. 홍범도 장군, 손기정 선수, 김구의 어머니와 아들, 미스터션샤인의 실제인물 황기환 등등, 대전현충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심장이 되었다. 안여중: 국립대전현충원은 특정한 사람들만 찾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현충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 인물과 역사적 사건들을 쉽고 의미 있게 풀어 놓았다. 이 반갑고, 귀한 책을 대전시민과 꼭 함께 읽고 싶다. 우신엽: 대전현충원에 문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독립운동·국가폭력·사회공헌 등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층위를 생생하게 조명하며 독자에게 깊은 생각을 이끈다. 대전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이 책은 지역 공간인 대전현충원을 배경으로 공동체 기억과 역사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평범했던 이들의 삶 속에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성찰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올해의 우리 대전 같은 책으로 추천할 만하다. 황인형: 본 도서는 대전현충원에 잠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책이다. 이를 통해 조국을 위해 자신을 바친 이들의 삶을 성찰해보고, 궁극적으로 독립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임용근: 객관적인 관점에서 대전현충원에 담긴 이야기를 가치중립적으로 잘 전달해준다.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선배: 1. 대전에 위치한 현충원의 이야기를 다룬 점 2. 대전지역 활동가들이 쓴 책이라는 점 3. 우리 현대사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p> <p>(선정위원 한마디) 대전현충원에 머는 것이 아닌 인간 존엄과 우리의 역사를 알게해주는 책, 저자들이 오랫동안 현충원 해설 활동을 해오며 겪은 현장의 목소리와 역사적 맥락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흥미로운 역사교과서</p> </div> </div>			

2025년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소개 5

책제목	시계탕		
작가	권정민	출판사	웅진주니어
<div data-bbox="209 439 895 1043"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16 443 1390 891" data-label="Text"> <p>(책 소개)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한 청소년들, 무력감 대신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기후 위기가 악화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이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말하며, 그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기후 소송을 이야기한다.</p> </div> <div data-bbox="916 958 1390 1093" data-label="Text"> <p>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 이야기는 마치 직접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독자들이 빠르게 몰입할 수 있도록 롤플레이팅 게임 설정으로 시작하는 만화와 함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과 기후 문제를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풀어냈다. 눈에 쏙 들어오는 편집과 다양한 구성 덕분에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p> </div> <div data-bbox="188 1346 1390 1435" data-label="Text"> <p>(추천이유) 아시아최초 기후위기 소송이야기. 기후위기의 시대에 모든 세대가 기후위기에 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책.</p> </div> <div data-bbox="188 1480 1390 1615" data-label="Text"> <p>(선정위원 한마디) 요즘 우리의 시대상과 가족,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동화로 표현해 우리를 되돌아 보게해준 책, 아이와 엄마 간 시간의 긴장 속에서 발견한 휴식과 성장의 판타. 시간 강박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느슨한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책</p> </div>			

2025년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소개 6

책제목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 낼거야(비문학-교양서)		
작가	이병주	출판사	다산어린이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209 461 667 1140" style="width: 30%;"> </div> <div data-bbox="683 461 1393 808" style="width: 65%;"> <p>(책 소개)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한 청소년들, 무력감 대신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기후 위기가 악화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이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말하며, 그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기후 소송을 이야기한다.</p> </div> </div> <p data-bbox="683 875 1393 1167">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 이야기는 마치 직접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독자들이 빠르게 몰입할 수 있도록 롤플레이팅 게임 설정으로 시작하는 만화와 함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과 기후 문제를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풀어냈다. 눈에 쏙 들어오는 편집과 다양한 구성 덕분에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p> <p data-bbox="183 1261 1393 1350">(추천이유) 아시아최초 기후위기 소송이야기. 기후위기의 시대에 모든 세대가 기후위기에 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책.</p> <p data-bbox="183 1395 1393 1541">(선정위원 한마디) 현재 가장 중요하지만 권력자들은 외면하고 싶은 문제인 기후 위기를 알리고 같이 대화할 수 있게 말할거리를 제공해주는 책, 기후 위기에 맞선 청소년들의 실제 헌법소송 과정을 통해 환경과 기본권의 중요성을 잘 연결해주는 책</p>			

2025년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소개 7

책제목	인간의 시간		
작가	이강산	출판사	눈빛
<div data-bbox="205 454 663 1133"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83 445 1390 586" data-label="Text"> <p>(책 소개) 여인숙 달방에서 367일간 머물며 만난 사람들의 일상, 대화, 삶의 풍경을 문장과 사진으로 섬세하게 담았습니다.</p> </div> <div data-bbox="683 680 1390 873" data-label="Text"> <p>(추천이유) 실제 삶의 단면을 투영한 휴먼 다큐멘터리로서 사진가로서의 정교한 시선과 작가로서의 사유가 결합된 결과물로, 독자로 하여금 ‘타인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p> </div> <div data-bbox="683 916 1390 1160" data-label="Text"> <p>‘여인숙’이라는 흔하고도 낯선 공간을 통해 시민사회, 복지, 인간관계의 본질을 성찰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정서적 묘사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정책과 현실을 말하는 지성도 함께 담겨 있어, 단순한 감상용 에세이를 넘어서는 깊이를 제공합니다.</p> </div> <div data-bbox="185 1202 1390 1395" data-label="Text"> <p>(선정위원 한마디) 나만을 위한 시간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는 책, 세상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글과 사진을 볼 수 있다. 책보다 영화가 좋다면 인간의 시간 다큐도 추천, 우리 대전에서 나고 자란 향토 시인이자 사진작가인 이강산 작가가 대전역 근처 여인숙 쪽 방에서 몸소 체험하며 소외된 인간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낸 책.</p> </div>			

2025년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소개 8

책제목	커먼즈란 무엇인가(비문학-사회과학)		
작가	한디디	출판사	빨간소금
<div data-bbox="209 441 667 1120"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687 450 1369 790">(책 소개) "자본주의를 넘어서 삶의 주권 탈환하기" 상상해 보자, 소유와 교환, 화폐를 뺀 사회적 관계를. 사적 소유를 삶의 기본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에게 이는 가장 어렵고 도발적인, 어쩌면 두렵기까지 한 요구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난 이후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p> <p data-bbox="687 801 1369 1144">이 책은 커먼즈의 개념과 커먼즈 운동을 둘러싼 담론들, 그리고 한국 내 동시대 커먼즈 운동의 모습까지 망라하여 소개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론과 의심해 본 적 없는 세계의 규칙들의 텅 빈 근거를 조목조목 짚으며 책은 현재의 경제, 정치 형태가 어쩌서 정답이자 진리가 아닌지, 커먼즈는 어쩌서 그저 이상이 아니라 단단한 현실이</p> <p data-bbox="185 1160 1369 1608">될 수 있는지를 설파한다. 불안한 개인의 삶,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불평등, 붕괴되는 전 지구적 생태...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고 삶의 주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우리안의 커먼즈를 발견하고 재감각해야 한다. 이대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내면의 소리를 들은 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서 안내하는 지도를 따라 움직이고 싶어지리라 믿는다. 커먼즈라는 개념은 언뜻 낯설어 보이고 낯선 것은 늘 모종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새로운 세계에 발 들이는 이방인이 겁먹지 않도록 최대한 상냥하고 친절하되, 알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하고 빠삭하다는 것이다. 저자의 다정함과 성실함의 힘이 여실히 느껴지는 책이다. 입문서가 가져야 할 모든 미덕을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게 채웠다.</p> <p data-bbox="185 1704 1369 1843">(추천이유) 분열과 공격을 강요받던 시기를 지나 사람 사는 세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누리고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으로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같이 읽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p> <p data-bbox="185 1888 1369 1977">(선정위원 한마디) 단순한 '공유 자원'을 넘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돌보며 함께 관리하는 사회적 실천이자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는 책.</p>			